

# 『눈동자에 비친 무지개』

## 이야기의 시작

「금세기 최대의 비보, ‘무지개의 눈동자’를 오늘 밤, 받아 가겠다.  
괴도 【랏 테일】」

이 문장이 적힌 편지를 처음 발견한 것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미술관의  
【미술관 관장】이었다.  
편지는 오후 4시 30분경, 미술관 우편함에서 발견되었다.  
우체국의 소인은 찍혀 있지 않았으며, 감시 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오후 4시 정각,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인물이 우편함에 편지를 투입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무지개의 눈동자’는 몽골에 낙하한 운석에서 발굴된 희귀한 보석이다.  
지름 약 2.5CM, 구형으로 세공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희뿌연 유백색을 띠지만 태양빛을 받으면  
일곱 가지 색으로 빛난다.

하늘에서 떨어진 보석이라는 점과 그 희소성으로 인해 이 보석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지개의  
눈동자’라 불리게 되었다.

이 보석은 원래 【부호】의 개인 컬렉션이었으나, 【미술관 관장】의 요청으로 이번에 한해 특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인물, 통칭 【랏 테일】.  
그는 수많은 미술품과 보석을 훔쳐 온 세계적인 대괴도로, 전 세계의 경찰과 조직이 그 행방을  
쫓고 있다.

너희 팔공 탐정사무소 역시 그를 추적해 온 존재들이다.

최근에는 그의 이름을 사칭한 모방범도 늘었지만, 그 어느 것도 본인의 수법에는 미치지 못했다.

편지 발견 후 1시간 뒤, 【경찰서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다.  
미술관 주변은 즉시 통제되었고, 경비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또한 【랏 테일】과 인연이 있는 너희 팔공 탐정사무소 역시 이 사건의 입회자로서 미술관에  
소집되었다.

오후 5시, 미술관은 일반 관람객에게 폐쇄되었다.

현재 관내에 남아 있는 것은 미술관 관계자, 경찰, 그리고 너희뿐이다.

‘무지개의 눈동자’는 미술관 중앙의 특설 홀에 전시되어 있다.

바닥과 벽, 기둥은 모두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반구형 천장과 창문에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촘촘히 장식되어 있다.

홀 중앙, 유리로 된 진열장 안에 ‘무지개의 눈동자’가 놓여 있고, 그 주변을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다.

창문은 개폐가 불가능하며, 출입구 역시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  
미술관 내부를 이동할 때마다 신체 검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경비는 철저하다.

## ■ 사건 발생 전 / 로비 장면

로비에 배치된 소파에 앉아 대기 중인 인물들.

체격이 좋고, 짧은 콧수염을 기른 50대 남성【미술관 관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지개의 눈동자’를 훔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나!”

브랜드 코트를 걸친 20대 남성【감정사】가 각진 선글라스를 살짝 밀어 올리며 말한다.

“설령 범인이 트릭이나 마술을 써서 보석을 가짜로 바꿔치기했다 하더라도... 제가 즉시 감정해 드리겠습니다.”

세련된 연갈색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부호】는 보석이 박힌 반지를 낀 손으로 박수를 치며 외친다.

“이 기회에 괴도 랫 테일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불독을 연상시키는 얼굴의【경찰서장】은 굵은 팔을 휘두르며 부하들을 격려한다.

“보라고, 이 늙은 전사들... 아니, 경찰들을! 내가 직접 단련한 정예다.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팔공탐정사무소는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 이 정도의 경비 속에서 ‘무지개의 눈동자’를 훔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 와서 무리하게 이동하기보다는 이곳에 머물며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편이 나아 보인다.

## ■ 자정 직전

시간은 흐르고, 밤 11시 30분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관계자들은 로비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며 이렇게 말한다.

“괴도 랫 테일도 겁을 먹고 도망친 모양이군.”

여유로운 미소가 떠오른다.

## ■ 사건 발생

그러나—— 시계의 바늘이 자정 0시를 가리킨 순간.

과가가강!!

특별 홀 쪽에서 커다란 파열음이 울려 퍼진다.

팔공 탐정사무소와 관계자들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간다.

홀에 도착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산산이 부서진 유리 진열장, 그리고 스테인드글라스의 파편들이 대리석 바닥 위를 마치 거대한 꽃처럼 수놓고 있었다.

위를 올려다보면 천장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산산조각 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홀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조차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때,【경찰서장】이 낮게 중얼거린다.

“설마... 이게【랏 테일】의 최후라니. 너무 허무하군.”

그의 시선이 향한 곳——

허리에 긴 로프를 맨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싼 남자가 부서진 유리 위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다.